

##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예레미야 17:5~11)

### 예레미야서의 하나님 메시지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과 시드기야왕의 치정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이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을 향해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조국을 위해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 1. 예레미야서의 내용 구성(1~52 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우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이 필연적임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삶을 포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망과 회복을 위한 예언을 열심히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음(1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받아 유대 나라와 이방 나라의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 (2) 유다 백성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2~45 장)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치세 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1~20 장) 또, 21~45 장 까지는 시드기야왕 치세 때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 **(3)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46~51 장)**

46~51 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애굽, 블레셋, 모압, 압몬, 다메섹,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 **(4) 예루살렘의 멸망(52 장)**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스른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 공의를 시행하는 날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명령을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도록 하십니다.

## **2. 예레미야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1:4~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찌니라(1:7)”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1:4, 11, 2:1)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5)”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2) 길르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8:22)**

“길르앗에서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8:22)”  
길르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셨고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침 받고 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마 4:22~24) 예수님은 영육 간에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3) 유다 백성을 지키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23:4, 31:10)**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23:4).”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참 목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 하시는 목자 이십니다.

**3.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영적 교훈**

**(1) 말씀의 임재에 대한 교훈(1:2, 4)**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1: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1:4).”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장소를 초월해서 임합니다.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2)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에 대한 교훈(1:11)**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1:11).”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예언 성취에 대한 상징입니다. 살구나무가 겨울에는 죽은 듯하나 꽃 방울을 터뜨리고 만개하듯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3) 끓는 가마의 교훈(1:13)

“...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1:13).” 이는 이방 나라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함에 대한 결과로서 징계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죄에 대한 공의는 언젠가 시행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고와 경고와 심판으로 인간을 다루십니다.(3:12~14, 4:1~4)

### (4)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의 악함(2:19)

“...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2:19)” 이는 무슨 뜻 입니까? 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큰악이요 ②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타락까지 가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 (5) 인생을 다스리는 채찍(14:12, 24:10)

“...번제와 소제를 드릴찌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14:12).” 여기서 칼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고, 기근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병은 알지 못하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징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른 죄의 결과로 발생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칼과 기근과 열병이 아니라 평안과 풍요와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6) 썩은 띠의 교훈입니다.(13:1~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13:9).” 썩은 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교만의 결과로 마치 띠가 썩듯이 허무하게 될 것을 교훈합니다.

**(7) 토기장이의 교훈입니다.(18:1~6)**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18:6)”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제외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29:8~9)**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곧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29:8).”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와 점치는 자와 그들의 꿈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9) 자기 백성을 결국 사랑하심을 교훈합니다.(32:36~42)**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32:42).” 이에 대하여 24:4~7 에 예고하셨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을 교훈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와함과 말씀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만함이 없는 태도로 살 때 재앙이 떠나고 영영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48:10)

**(10)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46:9~10)**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46:10).” 애굽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의 교만과 유다에 대한 잔악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 이방 나라, 그리고 개인의 선악에 대해 반드시 갚으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적자나 원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십니다.

### ◎ 결론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거역죄를 엄히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언약의 백성으로 영영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며 살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역하는 일이 있으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 순종과 경외심으로 긍휼함과 평안과 견고히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은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